

# 朝鮮時期 軍事史 研究의 動向

— 2001~2004년 —

吳 宗 祿  
(성신여대 교수)

1. 머 리 말
2. 研究의 概況
3. 中央軍制 및 地方軍制 研究
4. 軍役制度 및 軍事財政 研究
5. 武班 및 將帥 研究
6. 軍事施設·裝備 및 戰略·戰術 研究
7. 戰爭史 및 戰爭 관련 研究
8. 맺 음 말

## 1. 머 리 말

韓國史의 여러 分野史 중에서 軍事史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그런 중에도 조선시기의 군사사 연구는 다른 시기의 군사사 연구에 비해

월등히 이른 시기에 출발되어 이미 1940년대에 선구적인 성과가 나온 바 있으며, 1960년대 이후로 朝鮮前期의 군사사 연구가 본격화된 이래 한국 군사사 연구를 선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sup> 특히 1968년과 1977년 임진왜란을 경계로 하여 조선전기와 조선후기로 시기 구분한 가운데, 두 시기의 군사사 개설서라 할 만한 성과가 군사제도 중심으로 정리되어 제출됨으로써<sup>2)</sup> 군사사 연구의 수준이 새로운 지평 위로 올라서게 되었다.

조선시기의 군사사 연구가 본격화한 1960년대로부터 계산하여도 이제 그 연륜이 반세기에 가깝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축적된 성과의 내용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軍史』에서도 1990년대 말엽에 한국사 전시기의 군사사 성과를 순차적으로 점검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시기의 군사사 역시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검토된 바 있다. 그 한편 역사학계에서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며 지나간 세기의 한국사 성과에 대한 연구사 정리작업이 활발히 진행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군사사 성과는 대개 軍制史를 중심으로 정치사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정리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역사학계에서 아직도 군사사를 정치사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이 다분함을 보여준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선후기의 군사사 연구성과, 군역제 연구성과가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성과와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도 있어서,<sup>3)</sup> 한국사학계 일각에 군사사를 별도의 독립된 분야사로 인식하는 변화가 있었음도 파악된다.

전반적으로 군사사가 특수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앞서 언급한 몇몇 연구사 검토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이 글을 작성하는 현

1) 이에 대해서는 吳宗祿, 「朝鮮前期 軍事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 36, 1998. 7, 國防軍史研究所 참조.

2) 陸軍本部,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1968;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1977.

3) 김우철, 「조선후기 군사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0. 9, 창작과비평사;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위와 같음; 송양섭, 「조선후기 군역제 연구현황과 과제」, 위와 같음. 이 밖에 장용영에 대한 연구사 검토가 김정자, 「정조대 ‘화성성역’ 연구의 동향과 과제」, 『경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 2003. 6, 한신대출판부에 포함되어 있다.

시점까지의 기간은 길게는 6년, 짧게는 4년 정도에 불과하여 그다지 긴 기간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동안에 조선시기의 군사사 연구는 대단히 활발히 진행되어, 21세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 현 단계에 이르러 조선시대 군사사 연구자는 대체로 제1세대에서 제3세대까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제3세대의 약진이 주목된다.

조선시기의 군사사 연구는 軍役制度와 中央軍 및 地方軍의 軍制 연구에서 시작되어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 戰爭史 연구, 國防體制와 軍事施設, 武器에 대한 연구 등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는 군사사의 범주가 확대되어 온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작금의 동향은 그 범주의 확대가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이 글에서 검토한 결과를 미리 말하자면, 조선시기의 역사 전반 및 軍事 문제를 인식하는 관점이 다양해지고, 이용 자료의 폭도 넓어지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그러므로 앞으로도 조선시대 군사사 연구영역이 더욱 확대되리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이에 따라 과거 군사사 연구에서 주축을 이루었던 中央軍制 및 地方軍制 연구성과와 軍役制度 연구성과를 먼저 검토하고, 이어서 武班 및 將帥에 대한 연구성과, 그리고 軍事施設·裝備 및 戰略·戰術에 대한 연구성과, 마지막으로 戰爭史 및 戰爭 관련 연구성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정확하게 이와 같은 구분에 들어맞지 않는 성과들도 있으나, 형편상 더 상세한 구분은 피하였다. 또한 이상의 연구성과들을 수합해본 결과 예상을 뛰어 넘는 많은 양의 성과가 산출되었음을 파악하게 되었는데,<sup>4)</sup> 할애된 지면의 한계에 묶여 각 성과를 하나하나 소개하지 못하게 되었음에 대해서도 심심한 양해를 부탁드린다.

4) 이 글에서 검토할 연구성과는 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연구회보』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2004년도의 성과는 필자가 확인 가능한 한국사 학술지에서 적출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검토 대상에서 누락된 성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研究의 概況

2001~2004년 9월까지 발표된 조선시기 군사사 관련 연구성과로서 필자가 파악한 내용은 사료총서와 자료집 2종, 연구서 10권, 박사학위논문을 포함한 연구논문 149편으로서 총 161편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이전 시기의 경우와 비교해 보지 않아도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조선시기 연구성과물의 총수가 각각 477편과 889편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sup>5)</sup> 조선시기에 대한 연구 전반이 활성화된 속에서 군사사 연구도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군사사 연구가 이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과학사나 여성사 등의 다른 특수 분야사 성과에 비해 한국사 연구에서 현저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먼저 이 기간 동안에 간행된 사료총서와 자료집은 아래와 같다.

국립진주박물관, 『임진왜란 사료총서』(전10권), 2002. 2.

김주식 외(편), 『조선시대 수군관련 자료집-경종~철종 V-』, 해군사관학교, 2002. 12.

역사 연구에서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료를 조사 수합하여 정리하는 작업은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연구성과를 제출하는 것에 비해 조명을 덜 받는 것이 일종의 관습처럼 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사료총서와 자료집을 묶어 내고자 애쓴 이들의 노고는 더욱 많은 감사를 받아 마땅하다. 종래에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많은 자료집을 간행하여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

5) 韓亨周, 『朝鮮前期』, 『歷史學報』 179, 2003. 9, 歷史學會; 金成潤, 『朝鮮後期』, 앞의 책; 韓文鍾, 『朝鮮前期』, 『歷史學報』 183, 2004. 9, 歷史學會; 廉定燮, 『朝鮮後期』, 앞의 책.

바 있는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 체제가 개편된 이후로 새로운 자료집 발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간행된 연구서는 아래와 같다.

金康植,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혜안, 2001. 4.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6.  
 정혜은, 『조선후기 국토방위전략』, 2002.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인한, 『한민족 역대 파병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2.  
 金鍾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訓練都監의 設立과 社會變動－』, 혜안, 2003. 5.  
 金友哲,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景仁文化社, 2003. 5.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2003. 9, 국학자료원.  
 니영일, 『정조시대의 무예』, 2003. 9, 서울대학교출판부.  
 정혜은, 『한국 전통 병서의 이해』, 2004.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들 연구서 중에서 『정조시대의 무예』는 『武藝圖譜通志』와 이 책에 수록된 무예를 주로 다룬 것이며, 『한국 전통 병서의 이해』는 조선시기의 주요 兵書を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들 9책을 주제에 따라 나누어 보면, 3책이 軍制를 주제로 한 것이며, 2책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 또 2책이 무예를 다루고 있다. 군사제도를 주제로 하고 있는 3책과 임진왜란을 다룬 2책은 모두 기왕에 발표한 성과를 묶어 정리한 것이어서, 이제까지의 조선시기 군사사 연구의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발표된 130편의 논문을 다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한 군사사 내부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그 편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6)</sup>

6) 가)에는 국방체제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兵書を 다룬 연구는 戰法이나 戰術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어서 라)에 포함시켰다.

- 가) 中央軍制 및 地方軍制 研究成果: 45편
- 나) 軍役制度 및 軍事財政 研究成果: 12편
- 다) 武班 및 將帥 研究成果: 15편
- 라) 軍事施設·裝備 및 戰略·戰術 研究成果: 33편
- 마) 戰爭史 및 전쟁 관련 研究成果: 44편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군사사 연구의 경향성을 대강 파악할 수 있는데, 아직은 가), 나), 마)에 비해 비중이 적지만 라)부분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는 무기와 무기체계, 전법, 전술 등에 대한 연구가 전보다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로서, 이는 앞으로 군사사 연구가 새로운 궤도에 올라설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게 한다. 나)의 경우 조선시기 군사사 연구의 출발이 군역 연구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군사사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이해시키는 부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분발이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군사재정에 대한 연구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의 무반과 장수에 대한 연구 역시 새롭게 활성화된 부문이다. 전에도 장수에 대한 연구가 없지 않았고 현재의 연구도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못하나, 무반과 그 가문, 가계 등에 대한 연구성과 등이 축적되고 현재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인물사 연구방법론의 개척이 이루어지면 장수에 대한 연구 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는 여전히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덕분에 군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임진왜란 가운데서도 의병과 수군의 활동에 집중되고 있는 점은 시급히 타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구대상 시기로 보면, 임진왜란 이전 시기의 군사사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역시 자료의 한계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즉 『朝鮮王朝實錄』과 소수의 兵書 외에는 이용할 만한 사료가 많지 않은 까닭에 조선전기의 군사사 연

구는 군제 연구를 제외한 다른 부문에 대한 연구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年代記 자료나 兵書 등의 2차 내지 3차 사료가 아니라 원사료에 해당하는 고문서 등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일부 등장한 것과 아울러, 수는 적지만 군사사 사료에 대한 연구도 제출된 것이 있다.<sup>7)</sup> 이는 조금씩이나마 바닥을 다져가면서 군사사 연구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3. 中央軍制 및 地方軍制 研究

한국사학계에서 조선시기 군사사 연구가 본격화할 당시에는 정치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된 군제사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군사사의 영역이 정치사의 한 부문으로 간주되었었다. 군사력의 주된 기능이 국가권력과 핵심 정치권력의 보호에 있는 까닭에 최근의 군제사 연구도 여전히 정치사와 긴밀한 관련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분문제 등 사회사에 대한 관심 속에 군제사를 연구한 성과도 등장하였다. 2001~2004년의 군제사 연구는 조선전기는 중앙군을 중심으로, 조선후기는 지방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띠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전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먼저 조선전기부터 살펴보면 金鍾洙,<sup>8)</sup> 尹薰杓<sup>9)</sup> 두 연구자의 활동이 두드

7) 앞에 소개한 정혜은의 저술, 鄭求福, 「『國朝征討錄』의 자료적 성격」, 『藏書閣』 9, 2003.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을 들 수 있다.

8) 金鍾洙, 「朝鮮初期 府兵制의 改編」, 『歷史教育』 77, 2001. 3.; 「高麗·朝鮮時期 中央軍의 變化」, 『典農史學』 7, 一松籃李存熙教授停年紀念號一, 2001. 3.; 「朝鮮初期 中央軍制의 整備와 私兵制」, 『朝鮮의 政治와 社會 - 崔承熙教授停年紀念論文集』, 집문당, 2002. 10.

9) 尹薰杓, 「조선초기 감사와 통솔체계」, 『龜泉元裕漢教授停年紀念論文集』, 2000. 12.; 「조선초기 군공포상제의 개정과 신분변동」, 『史學研究』 63, 2002. 9.; 「麗末鮮初 軍法の 運營體系와 改編案」, 『한국사상사학』 21, 2003. 12.

러진다. 김종수의 연구는 기존과는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조선 건국 직전인 恭讓王 3년(1391년)에 이루어진 군제 개편에 주목하면서 고려 후기에는 개인이 지휘하는 병력으로서 私兵이 광범위하게 존재했으나 이때의 개편으로 府兵과 受田 散官, 成衆愛馬 등이 국가의 公兵으로 재편되었다고 보고 따라서 조선 초엽의 사병은 李成桂 휘하의 甲士와 侍衛牌에 국한되었고, 시위패도 태조 7년(1398년)에 공병으로 바뀌었으므로 定宗 2년(1400)에 이루어진 사병혁파에서 대상이 된 것은 감사뿐이었다는 주장이 주목된다. 그러나 사병의 실체와 사병혁파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로운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윤훈표의 연구는 군제의 운영을 신분변동 문제와 연계시켜 이해한 점, 그리고 이와 아울러 사료를 자세히 검토하여 군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찾아내서 조선 건국과 태종의 집권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제개편의 주안점을 파악하고자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조선 초엽의 군령기관인 三軍都摠制府와 그 핵심 구성원인 摠制에 대해 한충희, 이재훈 두 연구자가 각기 성과를 제출한 것도 흥미롭다.<sup>10)</sup> 조선초기의 정치제도를 정력적으로 연구해온 학자인 한충희의 연구는 정종~태종 시기의 摠制에 대한 연구의 연속편으로 총제의 직무와 총제에 임명된 인물을 자세히 분석하였으며, 이재훈의 연구는 총제가 私兵革罷 때 폐지된 절제사의 후신으로서 군사들에 대한 사적 영속관계가 쉽게 약화되지 않았으며, 태종 3년에 都摠制府가 三軍 각각에 설치되었음을 밝히고 이후 전개된 중앙군 군령권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한 점에 특징이 있다.

이 밖에 조선초기에 정예 무관 양성을 담당한 훈련원의 직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훈련원의 內禁衛와 甲士, 別侍衛 등의 선발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음을 강조한 朴洪甲의 연구,<sup>11)</sup> 국방체제의 개편과 장성

10) 韓志熙, 『朝鮮 世宗代(세종5~14년) 摠制研究』, 『朝鮮史研究』 9, 2000. 10, 朝鮮史研究會, 慶山; 李在勳, 『太宗·世宗代의 三軍都摠制府』, 『史學研究』 69, 2002. 3, 韓國史學會.

11) 朴洪甲, 『조선시대 군사훈련기구 훈련원의 성립과정과 역할』, 『軍史』 43, 2001. 8, 國防

등의 군사시설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한 봉명사신인 都體察使와 體察使를 다루며 세종 연간에 도체찰사 등이 築城을 중심으로 국방과 관련되는 군사 업무를 관장하다가 세조대 이후 축성의 필요성이 낮아지자 賑恤이나 堤堰 등 민생과 관련된 사안을 주로 관할하였고, 성종 초엽 여진족 침입에 대비한 북방 지역 축성의 필요성이 다시 높아지고 下三道에서 營鎮 축성이 시도되면서 축성 사업을 주관할 전담 부서로서 築城司를 설치하게 되는 과정을 고찰한 金順南의 연구<sup>12)</sup> 鎭管體制 편성 후 유사시에 制勝方略의 分軍體制가 형성되기까지 유사시에 중앙에서 장수를 파견하던 방식에 대한 서태원의 연구<sup>13)</sup> 등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조선초기의 신분제에 대한 여러 연구성과를 제출한 바 있는 劉承源은 太宗 때의 受田牌와 無受田牌를 살핀 연구에서 무수전패는 科田을 받은 전함관 가운데 지방 거주를 선택하여 과전이 몰수된 자를 대상으로 설치한 병종이며, 京侍衛牌는 전함관이 소속되는 병종이 아니라 甲士에서 제외된 자 중 서울 거주자로 편성된 別牌를 시위패에 합속시키면서 명칭이 경별패에서 경시위패로 바뀌었음을 논구하였다.<sup>14)</sup> 그리고 차인배는 군제의 범주에 넣어서 이해할 수 있는 주제인 捕盜將制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sup>15)</sup> 문종 때 포도관 설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설치는 유보되었다가, 성종 때 지방의 도적집단을 해결하기 위해 포도장의 설치가 이루어졌고, 포도장의 지방파견 문제에 대한 논란을 거쳐 서울의 포도 업무를 관할하는 쪽으로 방향 정리가 된 뒤, 이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병조에서

部 軍史編纂研究所; 「조선초기 훈련원의 위상과 기능」, 『史學研究』 67, 2002. 9, 韓國史學會.

12) 金順南, 「世宗代 體察使制의 運用」, 『韓國史學報』 14, 2003. 3, 高麗史學會; 「成宗代 體察使의 變化와 築城司의 設置」, 『史學研究』 14, 2003. 9, 韓國史學會.

13) 徐台源, 「조선전기 유사시 지방군의 지휘체계—중앙 군사지휘관의 파견과 관련하여—」, 『史學研究』 63, 2001. 9, 韓國史學會.

14) 劉承源, 「朝鮮 太宗代 前衛官의 軍役—受田牌·無受田牌의 설치경위와 京侍衛牌의 實體—」, 『韓國史研究』 115, 2001. 12, 韓國史研究會.

15) 車仁培, 「朝鮮前期 成宗~中宗代 捕盜將制 고찰」, 『史學研究』 72, 2003. 12, 韓國史學會.

인사권을 관할하도록 정비되고 종종 때 조직이 완비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조선후기의 중앙군제에 대한 연구로는 徐台源과 백기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sup>16)</sup> 서태원의 연구는 실학자들이 펼친 五衛制 복구론과 5군영의 군액 감축론을 살피면서 그 관점이 의도하는 바와 한계를 짚어냈으며, 백기인의 연구는 英祖 때 宋奎斌이 전개한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백기인과 유사한 주제를 다룬 盧永九의 연구는 화성에 설치된 장용영 외영과 그에 의한 방위체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앙군제와 지방군제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正祖가 五衛體制와 屬五衛體制로 이어지는 형태로 군제를 개편하려 했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sup>17)</sup> 그리고 반윤홍은 규장각 도서인 『膽錄類抄』에서 제2차 寧古塔 入送節目을 찾아내 전투 준비과정의 구체적 내용을 밝힌 연구를 발표하였다.<sup>18)</sup>

이 밖의 연구성과들은 대체로 지방군제에 관련된 것들인데, 조선후기의 지방군제 및 국방체제 연구에서 다소 공백이 있었던 17세기에 대한 연구가 『韓國史學報』에 특집으로 묶여 게재된 것이 눈여겨 볼 만하다.<sup>19)</sup> 이 가운데 송양섭의 연구는 17세기에 들어와 유사시의 保障處로서 주변의 島嶼 및 군현과 연계한 江華의 방어체제가 구축 강화되고 肅宗 4년(1678년) 鎭撫營의 설치를 계기로 수도권 방어의 유기적 구성요소로 등장하였다가 18세기에 도성방어체제가 표방되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약화되는 과정을 밝혔고, 권내현의 연구는 光海君 때에 後金 세력의 성장에 주의하며 도체찰사 등에

16) 徐台源, 「朝鮮後期 實學者의 中央軍制 改革論」, 『軍史』 49, 2003. 8,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백기인, 「18세기 오위진관체제의 일고찰」, 『清溪史學』 16·17, 2002. 2, 정신문화연구원 清溪史學會.

17) 盧永九, 「正祖代 五衛體制 復舊 시도와 華城 방어체제의 개편」, 『진단학보』 93, 2002. 6, 震檀學會.

18) 반윤홍, 「備邊司의 羅禪征伐 鑄劄에 대하여—효종조 寧古塔 과병절목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11, 2001. 9, 高麗史學會.

19) 송양섭, 「17세기 江華島 방어체제의 확립과 鎭撫營의 창설」, 『韓國史學報』 13, 2002. 9, 高麗史學會; 권내현 「17세기 전반 對淸 긴장 고조와 平安道 방비」, 같은 책; 이철성 「17세기 평안도 강변 7읍의 방어체제」, 같은 책.

의한 비상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성곽 수축, 병력 보충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였으나, 仁祖 집권 후 명분론적 외교를 강화하여 후금과의 관계 악화가 예상되었음에도 오히려 李适의 반란, 山城 방어책과 要衝地 방어진 사이의 갈등 등의 이유로 방비의 악화를 초래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이철성은 17세기 전기간에 걸쳐 江界에서 義州에 이르는 평안도 강변 7읍의 방어체제가 구축되는 양상을 비교적 세밀하게 고찰하여, 임진왜란 이후 군병 확보의 어려움과 병자호란 이후의 청의 압력 등이 작용하여 수도 방어체제나 평안도 내지의 방어체제 구축보다 이 지역의 방어체제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그럼에도 이 노력이 지역개발에 디딤돌의 구실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권내현은 이에 앞서 숙종대 후반에 淸의 女眞族이 영고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낭설이 유포되고 청 내부에서 해적이 창궐하자 조선에 咨文을 보내 이에 대한 방비 강화를 주문한 것 등의 영향으로 평안도에 육군과 수군의 방어영을 설치하는 등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군제를 재정비하였으나, 그 작업이 일단락된 18세기 초부터 이미 방비가 해이되었음을 밝힌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sup>20)</sup>

한편 서태원은 조선 말엽 지방군의 실질적인 기능이었던 치안에 대해 논구하여, 지역별로 치안을 담당할 병력의 배치 내용이 달랐다는 것을 밝히고 이 가운데 鎭營을 중심으로 한 치안 기능을 살폈으며,<sup>21)</sup> 여진족의 영고탑 회귀 낭설을 빌미로 잠시 전개되었던 국방 강화 움직임을 살핀 백기인의 연구,<sup>22)</sup> 지방사 연구의 시각에서 지방 병력의 하급 지휘기구인 將廳을 다룬 裴基憲의 연구도 제출되었다.<sup>23)</sup> 기초 문서의 하나인 해유문서를 토대로 특정 지역의 군비 실태를 다룬 두 편의 연구가 발표된 것은<sup>24)</sup> 군사사

20) 권내현, 「조선후기 평안도 방어체제의 정비와 이완」, 『史學研究』 69, 2002. 3, 韓國史學會.  
 21) 서태원, 「19세기 지방군의 치안구조와 진영」, 『史學研究』 66, 2002. 6, 韓國史學會.  
 22) 백기인, 「18세기 북벌론과 대청방어전략」, 『軍史』 41, 2000. 12,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3) 裴基憲, 「朝鮮後期 將廳의 成立과 性格」, 『朝鮮史研究』 9, 2000. 10, 朝鮮史研究會, 慶山.  
 24) 이왕무, 「조선후기 국경수비체제의 편성과 운영」, 『軍事史研究論叢』 3, 2003. 4 ; 李瑀秀, 「鴻山縣監 解由文書를 통해 본 18세기말 忠淸道 鴻山縣의 軍備 實態」, 『古文書研究』

연구의 토대가 단단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로 생각된다. 엄밀하게 따지면 군사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수군 진의 재정구조를 살핀 연구도 보인다.<sup>25)</sup>

그리고 군제와 관련된 연구 내지는 군제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연구로서 17세기 중후반의 중앙 및 지방군제 전반을 살피면서 이 시기의 군사력이 국방보다 중앙 권력의 보호에 치중되었음을 밝힌 오종록의 연구와<sup>26)</sup> 16세기 조선왕조실록의 사론을 검토하여 이 시기의 사관들이 국방상의 큰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곤 군사 문제에 관심이 적었고 그나마 성리학적 명분론에 치우쳐 이상적이고 이념에 초점이 맞추어진 국방관을 드러내고 있었음을 밝힌 김경수의 연구가 있다.<sup>27)</sup> 이 성과 역시 군제라기보다는 군사 관련 문화 연구로 보아야 할 것으로 국왕 행차의 준비와 호위를 다룬 연구가 제출되어 있는데, 장서각 자료인 『摠戎廳行幸膽錄』 등을 자료로 하여 황의 행행 때 擇日로부터 兵曹가 장소와 거리 시간 등을 공지하고 軍兵을 선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호위하는 내용까지 서술하고 있다.<sup>28)</sup> 이 밖에 일봉의 군사문화를 다룬 논고로 大射禮를 다룬 연구와 馬上衣를 고찰한 연구가 있음을 부수적으로 기록해 둔다.<sup>29)</sup>

23, 2003. 8, 韓國古文書學會.

25) 김경옥, 「朝鮮後期 靑山島鎮의 設置와 財政構造」, 『全南史學』 32, 2003. 12.

26) 오종록, 「조선군사력의 실태」,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인조~현종시기—』(대우학술총서 558), 2003. 7,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 정치사 연구반, 아카넷.

27) 김경수, 「朝鮮 中期 史官의 國防意識 —『明宗實錄』 史論을 중심으로—」, 『軍史』 48, 2003. 4,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8)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扈衛와 行幸」, 『藏書閣』 7, 2002.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선후기 순조의 舉動과 行幸에 대하여」, 『淸溪史學』 18, 2003.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淸溪史學會.

29) 姜信曄, 「朝鮮時代 大射禮의 施行과 그 運營—大射禮儀軌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16, 2001. 3, 朝鮮時代史學會; 김향미·박성실, 「조선시대 기능적 馬上衣의 실증적 고찰」, 『韓國服飾』 20, 2002. 5, 檀國大 石宙善紀念博物館.

#### 4. 軍役制度 및 軍事財政 研究

조선시기의 군사사 가운데 현재 주장이 크게 대립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점이 가장 많은 것이 조선 초엽 15세기 중반까지의 군역제도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연구는 별반 눈에 띄지 않으며, 다만 이현수가 기왕에 대강 해명된 바 있는 15세기 후반의 군액 정액화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핀 연구만이 확인된다.<sup>30)</sup>

근래에 조선시기의 白丁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 이준구는 赴防 및 軍役 편입 여부를 검토하여 조선초기에는 농업에 종사하며 정착한 백정을 주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무예 기능을 높이 평가하여 군역을 지웠으나, 차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락해지면서 16세기 초엽 이후로 백정의 군역 부과는 중단되었음을 밝혔다.<sup>31)</sup>

조선 중기의 군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평시에는 사족층의 군역 부과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도 왜구의 침입 등에 대처하여야 할 때에는 기병으로 활동이 가능한 사족층에게 철저히 군역을 부과하려 하였고, 이를 면하고자 하는 사족들의 다방면의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경상도 성주 지역의 사례를 통해 밝힌 김성우의 연구가 있다.<sup>32)</sup>

조선후기의 군역에 대해서는 노군의 군역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기는 하나 호적대장을 통해 면밀히 그 양상을 점검한 손병규의 논고가 돋보인다.<sup>33)</sup> 그는 먼저 ‘都已上’의 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도이상조 군역, 직역의

30) 이현수, 『朝鮮初期 軍丁의 定額化過程과 軍額 推移』, 『朝鮮時代史學報』 26, 2003. 9.  
 31) 이준구, 『조선전기 백정의 부방과 군역여부에 관한 검토』, 『仁荷史學』 10, 2003. 8, 仁荷史學會.  
 32) 김성우, 『16세기 중반 국가의 군역 동원방식과 성주 사족층의 대응』, 『朝鮮時代史學報』 18, 2001. 9, 朝鮮時代史學會.  
 33) 손병규, 『조선후기 상주지방의 역수취체제와 그 운영』, 『역사와 현실』 38, 2000. 12, 한 국역사연구회; 『18세기 지방의 私奴軍役 과악과 운영 - 『慶尙道丹城縣戶籍臺帳』의 기재상

통계를 내어 이를 良役實總 및 邑誌에 기록된 軍役 수와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사실상의 軍役 정액을 의미한다는 확증을 잡고, 호적대장에 나타나는 私奴의 신분 변동에 의문을 품고 사노로서 호적에 이름이 기재되는 것이 반드시 避役을 위한 것이 아니리라는 선입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어서 그가 疊役 즉 역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상황에 놓여 있던 私奴의 軍役 부담 내용을 단성현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핀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노에 대한 호적의 파악 비율이 낮은 가운데 사노의 상전은 가급적 같은 고을에 거주하는 사노에게 軍役을 부담시키고자 하였고, 지방지배세력은 이들의 역종을 지방관청의 재정수입으로 연결되는 '邑所屬'으로 묶어두는 것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시기의 군사 재정에 대한 연구가 근래 소수이기는 하나 몇몇 연구자에 의해 전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개 둔전에 대한 것으로 그 경영 형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만 권내현의 연구가 평안도의 방어 태세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들 논고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sup>34)</sup>

## 5. 武班 및 將帥 研究

이 부분의 연구성과 중 일부는 군사사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무반 가계나 가문에 대한 구명 역시 군사

항-」, 『韓國史學報』 13, 2002. 9, 高麗史學會; 「戶籍臺帳 職役欄의 軍役 기재와 都已上의 통계」, 『大東文化研究』 39, 2001. 12, 성균관대 大東文化研究院.

34) 송양섭, 「조선후기 군아문둔전의 경영형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1. 6.; 송찬섭, 「정조대 장용영 둔전의 설치와 운영」, 『논문집』, 2001. 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송양섭, 「18 19세기 군아문둔전의 관리와 둔전의 존재양태」, 『史學研究』 66, 2002. 6, 韓國史學會; 權乃鉉, 「17세기 전반 平安道の 軍糧 운영」, 『朝鮮時代史學報』 20, 2002. 3, 朝鮮時代史學會.

사 이해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개 내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선 무과 및 무과급제자에 대한 연구로서 鄭海恩의 박사논문과<sup>35)</sup> 심승구의 논고<sup>36)</sup>가 있다. 무과급제자의 명단과 그 가족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武科榜目』은 『文科榜目』에 비해 보존되고 있는 수량이 훨씬 적지만, 조선후기의 주요시기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으며,<sup>37)</sup> 이들 연구를 통해 군사적 필요에 의해 그리고 특정 지방의 지배층을 고려한 목적으로 무과가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재미 학자인 박영진도 조선초기 무과급제자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출하였다.<sup>38)</sup> 그는 『호남지』와 『호남진신록』 등 무과급제자 관련 기록을 통하여 구축한 무과급제자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연구를 진행하여 기존 연구성과를 재확인하면서, 이미 관직이나 관계를 받았거나 양반 특수 정예군 소속, 문과 성향의 집단과 무과성향의 집단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선후기의 정치권력이 소수의 문벌 가문에 집중되는 경향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軍門大將 등 핵심 군직을 담당하는 존재 역시 몇몇 가문에 집중되는 변화가 수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최근에 張弼基에 의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여러 가문의 구체적 사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sup>39)</sup> 이에 따르면 군문대장을

35) 鄭海恩, 「朝鮮後期 武科及第者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2002. 12, 정해은은 무과급제자의 개별 사례 연구도 진행한 바 있다(「18세기 경상도 단성현의 한 양반 무과급제자의 仕宦과 處世」, 『朝鮮時代史學報』 26, 2003. 9).

36) 심승구, 「조선후기 무과의 운영실태와 기능—萬科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3, 2002. 12, 朝鮮時代史學會.

37) 이에 대해서는 정해은, 「조선시대 武科榜目の 현황과 사료적 특징」, 『軍史』 47, 2002. 12,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를 참조.

38) 박영진, 「조선초기 무과출신의 사회적 지위—태종~성종년간의 급제자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9, 2001. 3.

39) 張弼基, 「조선후기 선전관출신 가문의 무반벌족화」, 『軍史』 42, 2001. 5,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조선후기 武班家門의 構成과 閥閥化(1)」,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2003. 8, 집문당; 「朝鮮後期 武班家門의 構成과 閥閥化(2)—平山申氏 文僖公派 武班家系를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25, 2002. 12, 영남대 民族文化研究所; 「조선후기 武班家門

배출하는 가문은 全州李氏, 德水李氏 등 소수로 집중되고, 그 변화는 17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어 차츰 본격화한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宣薦 즉 무관의 淸要職으로 일컬어지는 宣傳官에 薦望되는 것이 중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음도 밝히고 있는데, 정해은 역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sup>40)</sup> 선천이 광해군대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이유를 험난했던 왕위계승과정과 그에 따른 호위 강화의 필요성에서 찾고 있다. 또한 『선전관정천안』을 근거로 한 영조~철종 연간의 양상 분석에서 기득권이 있는 가문 출신으로 선천을 거친 자들의 군영대장 독점 현상이 빚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 주목되는 연구로 노영구의 논구가 있다. 그는 지방 무사층이 군제 및 병법의 변화에 따라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해명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sup>41)</sup> 1990년대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18세기 초엽의 親騎衛, 別武士, 別驍衛 등의 정예기병 창설과 확대 과정을 정리하고 적의 대규모 화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병전술을 개발한 사실을 통해 조선후기 군사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확인하고, 하층민 출신 무사들이 정예기병으로 대거 입속하면서 전개된 지방사회의 역동적 변화 양상을 밝히고 있다. 李舜臣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행 연구가 있는데, 이번에 張學根이 무장으로서의 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발표하여 이순신과 함께 무과에 급제한 인물들 중에서 甲科와 乙科 급제자가 고위관직에 오른 사람이 드물고 오히려 이순신을 포함하여 丙科에 급제한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도 많은 반면, 고위 관직에 오른 수도 많음을 확인하고 그의 전투지휘 능력을 전에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큰 정공을 세운 것으로 이룬

의 構成과 閥閥化(3)-全義李氏 大司成公·典書公派의 武班家系를 중심으로-, 『仁荷史學』 10, 2003. 8, 仁荷史學會.

40) 정해은, 「조선후기 宣薦의 운영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 현실』 39, 2001. 3, 한국역사연구회.

41) 노영구, 「18세기 騎兵 강화와 지방 武士層의 동향」, 『韓國史學報』 13, 2002. 9, 高麗史學會.

李鑑과 비교하여 서술하였고,<sup>42)</sup> 오종록은 이순신의 선비적 기질을 부각시키면서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이순신 및 임진왜란의 수군 활동 관련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sup>43)</sup>

## 6. 軍事施設·裝備 및 戰略·戰術 研究

군사사는 종합적 연구의 의미가 각별한 한편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속성이 역사학의 어느 분야사보다도 중요하다. 군사 자체가 어느 시대에서나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무기와 장비의 제조, 군사시설의 축조에 동원되었을 뿐더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수집과 판단이 성패를 좌우해온 까닭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군사사 연구의 배후에는 이념의 문제가 작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로부터 차츰 벗어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근대사회의 국방체제의 내용은 성곽이 관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곽을 중심으로 평시 또는 유사시의 병력 배치와 동원이 이루어지고, 군량을 비롯한 군수물자의 보관도 이에 좌우되었으며, 교통과 통신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와 내용으로 성곽을 축조하는가는 곧 그 주변 지역의 국방체제를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성곽과 그 시설에 대한 연구의 의미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성곽 연구는 활발한 편이 못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sup>44)</sup> 가운데서 정연식은 수원 화성 축

42) 張學根, 「武科合格·軍官生活·戰術能力에 나타난 李舜臣의 武學研究」, 『軍史』 49, 2003. 8,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43) 오종록,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이순신 관련 서술의 문제점과 제언」, 『韓國史學報』 16, 2004. 3, 高麗史學會.

44) 장지연, 「개경과 한양의 도성구성 비교」, 『서울학연구』 1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柳承宙, 「南漢山城의 行宮·客館·寺刹建立考」, 『韓國史研究』 120, 2003. 3, 韓國史

조에 적용된 정약용의 「城說」이 유성룡의 城說과 明末 茅元儀의 『武備志』를 토대로 하였다는 점, 임진왜란 이후 화약무기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전쟁 양상 등에 착안하여 화성의 체제가 한국의 전통적인 성의 체제와 달리 內托으로 성벽을 두텁게 쌓고 女牆의 堞의 높이를 낮추고 폭을 넓혀 타마다 遠銃眼 둘과 近銃眼 하나를 둔 까닭을 동서양의 사례를 폭넓게 살피면서 추구한 연구를 발표하여 눈길을 끈다. 그리고 金周洪은 답사를 통하여 관측한 봉수에 대한 논고를 발표하였으며,<sup>45)</sup> 金榮官은 京畿畿로 호칭되는 아차산 봉수, 천림산 봉수, 무악의 동봉수와 서봉수, 개화산 봉수 등 조선시대 서울지역의 봉수대를 살피면서 화성의 봉수를 표본으로 삼아 여러 곳의 봉수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sup>46)</sup> 이 외에 군사와 관련된 시설로는 驛에 대한 연구가 있다.<sup>47)</sup> 이 연구는 제목으로만 보면 조선시기의 범주를 벗어나나, 실제 내용은 조선후기 역의 驛舍, 근무 인원의 구성과 기능 등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조명하여 조선후기가 전개되는 동안 역이 일반 군현과 유사한 지방행정기능을 하는 쪽으로 변화되어 갔음을 밝혔다.

군사시설에 대한 연구는 종래에도 일부 교통, 통신과 관련지어 이루어진 것이 있으나, 상호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조선시대에 대단히 많은 양의 군사목적의 지도가 제작되어 조선후기의 것은 상당량이 남아 있는데, 이를 활용한 연구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점은 재고해야 할 대목으로 생각된다. 군사사가 종합적 성격의 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이

연구會; 한기문, 「조선시대 상주 읍성의 연혁과 규모」, 『歷史教育論集』 28, 2002. 2; 鄭演植, 「화성의 방어시설과 총포」, 『農檀學報』 91, 2001. 6.

45) 金周洪, 「京畿地域의 烽燧位置考(II)－해발 100~200m내의 內地 烽燧를 중심으로－」, 『白山學報』 62, 2002. 4, 白山學會; 「朝鮮前期 京畿中部地域의 烽燧 考察」, 『詳明史學』 8·9, 2003. 12.

46) 金榮官, 「조선시대 서울지역의 봉수대 설치와 운영」, 『白山學報』 69, 2004. 6.

47) 정순옥, 「19세기말 驛의 構成과 行政機能－『慶尙道 幽谷驛 關聯 古文書』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10, 2001. 3, 高麗史學會.

러한 부문은 전공 분야가 다른 여러 학자의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특정 연구소나 학회의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무기와 방법에 대한 연구로는 병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임진왜란 이후 무기체계와 전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추구한 盧永九의 박사논문이 두드러진다.<sup>48)</sup> 그는 40여 종에 달하는 조선후기의 병서를 살피면서 각 시기별로 큰 역할을 한 병서를 추려내어, 임진왜란 직후 戚繼光의 『紀效新書』에 수록된 短兵器를 중심으로 하는 전법이 조선의 군대에 대대적으로 적용되던 시기, 광해군 때 후금의 침입 우려가 높아지자 포병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했다가 심하 전투에서 포병 중심의 조선군이 후금의 기병에게 대패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인조대 이후 효종 때까지 다시금 살수와 기병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화포의 개량이 이루어진 시기, 성능이 좋아진 조총의 등장으로 사수의 비중이 약화되어 기병이 鞭棍을 사용하고 佛狼機砲를 장착한 戰車가 등장하는 등의 변화 속에 정조 때에 이르러 기병, 보병, 포수의 세 병종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三兵戰法’이 확립되는 과정 등을 중국과 서양의 연구성과까지 인용하면서 구명하였다. 그가 결론에서 이념에 치우친 연구나 전쟁사가 아닌 전투 중심 연구 등에 대한 반성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노영구는 이 밖에도 병서와 무기, 전법, 군대의 편제 등을 함께 살피는 연구를 정력적으로 수행하여 논고를 다수 발표하였는데,<sup>49)</sup> 일부는 학위논문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 가운데서 『武藝圖譜通志』와 관련된 연구는 ‘『武藝圖譜通志』의 종합적 검토’를 제목으로 하여 개최된 진단학회

48) 盧永九,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2.

49) 盧永九, 『임진왜란 이후 전법의 추이와 무예서의 간행』, 『韓國文化』 27, 2001. 6, 서울대 韓國文化研究所; 『17세기 조선의 火器 발달 추이와 관련 兵書의 간행』, 『朝鮮의 政治와 社會－崔承熙教授停年紀念論文集』, 집문당, 2002. 10.; 『朝鮮後期 火器 발달사 연구 현황과 이해의 방향』, 『學藝誌』 9, 2002. 12,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兵學指南』에 나타난 조선후기 수군의 전투 훈련』, 『문헌과 해석』 24, 2003. 9, 문헌과 해석사; 『조선후기 短兵 戰術의 추이와 『武藝圖譜通志』의 성격－兵書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91, 2001. 6, 震檀學會.

의 제28회 한국고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것으로, 조선후기 군대에 새로운 戰法과 무예가 보급되는 과정을 각 시기의 兵書들을 통해 간략히 정리하고, 화약무기의 발달에 대응하여 기병을 강화하고 기병전법을 개발한 노력과 연관되어 앞서 언급한 ‘三兵戰術’이 완성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수록한 『兵學通』과 짝하여 短兵 전술훈련을 위한 병서로서 『武藝圖譜通志』가 편찬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이 밖에도 『武藝圖譜通志』의 편찬 배경을 다룬 裴祐晟의 연구가 발표되었는데<sup>50)</sup> 정조의 무예와 오군영체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武藝圖譜通志』의 편찬 과정을 사도세자의 『武藝新譜』 편찬 사업에서부터 검토하여 그 목적이 생부인 사도세자의 뜻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무반층을 양성하여 이를 장용영을 통해 수용하고, 장용영의 군사들을 통하여 표준 무예를 정하여 정착하고 보급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武藝圖譜通志』가 전통무예의 종합 정리를 이룬 책이라는 전통적 관점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 연구와<sup>51)</sup> 회화사의 관점에서 살핀 연구 및 서지학의 관점에서 언해본을 소개한 연구 등도 발표되었다.<sup>52)</sup> 그리고 정해은 또한 무기와 병서를 연계한 연구를 제출한 바 있으며,<sup>53)</sup> 심승구는 『武藝圖譜通志』로 이어지는 조선의 무예들 가운데서 병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예를 따로 분류하여 ‘徒手’ 무예로 이름 짓고 그 변화 발전 과정을 천착하였다.<sup>54)</sup> 지금은 민속의 하나라 간주되지만 당시에는 실전훈련으로서의 의미가 컸을 石戰에 대해서도 두 편의 글이 눈에 띈다.<sup>55)</sup>

50) 裴祐晟, 「正祖의 軍事政策과 『武藝圖譜通志』 편찬의 배경」, 『震檀學報』 91, 2001. 6, 震檀學會.

51) 羅永一, 「『武藝圖譜通志』의 武藝」, 앞의 책.

52) 정병모, 「『무예도보통지』의 판화」, 앞의 책; 이현희, 「『武藝圖譜通志』와 그 諺解本」, 앞의 책.

53) 鄭海恩,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短兵器와 『武藝諸譜』의 간행」, 『軍史』 51, 2004. 4,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54) 심승구, 「한국 무예의 역사와 특성—도수무예를 중심으로—」, 『軍史』 43, 2001. 8,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은 조선시기의 주요 무기에 대한 기획을 마련하였는데, 화약무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sup>56)</sup> 무기에 대한 연구 가운데 화약무기와 활과 화살 등을 제외한 기타 무기들에 대해서는 기초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분발이 촉구된다. 박재광은 임진왜란 당시 전쟁 당사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기의 교류에 주목하여 三眼鏡 虎蹲砲 佛狼機는 명군으로부터, 鳥銃은 일본군으로부터 입수되어 차츰 대량생산의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다.<sup>57)</sup> 이 밖에도 무기에 대한 연구가 몇 편 발표되었는데,<sup>58)</sup> 許泰玖의 연구는 17세기 화약무기 발전의 배경에 자리하는 국제무역을 밝힌 것이고, 신동규의 연구는 훈련도감의 무기 개발에 기여한 서양인은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하멜이 아닌 박연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무기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나 조선초기의 무기 제작에 대한 연구로는 金一煥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59)</sup> 그에 의하면 세종 때에 이르러 전보다 성능이 탁월해진 화약무기 제조기술이 개발된 상태에서 신기술 적용에 미온적인 軍器監 중심으로 중앙에서 제조하던 방침을 바꾸어 監鍊官을 각도에 파견하여 화약무기를 제조하기 시작하여, 세종 27년~31년 동안 많은

- 55) 강성문, 「조선 석전과 석전대」,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金昌錫, 「석전의 기원과 그 성격 변화」, 『國史館論叢』 101, 2003. 12, 國史編纂委員會.
- 56) 강성문, 「조선의 역대 화차에 관한 연구」, 『學藝誌』 9, 2002. 12,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강신엽, 「訓局新造軍器圖說」, 앞의 책; 박재광, 「15~16세기 조선의 화기 발달」, 앞의 책; 백종오, 「壬辰倭亂期 武器類 발굴의 고고학적 성과」, 앞의 책; 연갑수, 「대원군 집권기 무기개발과 미국기술 도입」, 앞의 책. 주 49)의 이 책에 실린 노영구의 논문은 총설에 해당한다.
- 57) 박재광, 「임진왜란기 朝·明·日 삼국의 무기체계와 교류—火藥兵器를 중심으로—」, 『軍史』 51, 2004. 4,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 58) 許泰玖, 「17세기 조선 鎗砲貿易과 火藥製造法 발달」, 『韓國史論』 47, 2002. 12, 서울대 국사학과; 신동규, 「訓鍊都監의 신식무기개발과 西洋異國人 등용정책」, 『鄉土서울』 63, 2003. 11, 서울市史編纂委員會; 박재광, 「임진왜란기 朝·明·日 삼국의 무기체계와 교류—火藥兵器를 중심으로—」, 『軍史』 51, 2004. 4,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 59) 金一煥, 「朝鮮初期 月課軍器制下の 軍器製造」, 『朝鮮時代史學報』 16 2001. 3, 朝鮮時代史學會; 「朝鮮初期 監鍊官制下の 軍器製造 研究」, 『韓國史學報』 10, 2001. 3, 高麗史學會.

무기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문종 즉위 후 부담이 커진 민의 저항이 심한 상황에서 예센의 명 침공 소식이 전해진 것에 대한 대응으로 감련관에게 재래식 무기를 도회소에서 제조하는 방식을 적용하다가, 단종 원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뒤 정통성의 결합이 작용하여 민의 저항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종래의 방식을 중단하였다고 한다. 무기와 연결되는 군사장비에 대한 연구로는 張學根의 거북선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띈다.<sup>60)</sup> 이 연구는 임진왜란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선과 일본 상호간에 수군의 전함을 개량하고 그에 따라 전술도 변화시키는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일본 수군의 전함 규모가 대형화한 것에 대응하여 거북선도 대형화하였고, 그에 따라 차츰 돌격용 함선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되었다고 한다.

무기와 병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와 달리 전략, 전술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임진왜란 때 조선과 명, 일본 삼국의 해전에서의 전략전술을 조선과 일본 양자를 중심으로 살핀 연구와 진주대첩이 6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얻은 것임을 강조하며 金時敏이 정보 수집에서 병력의 동원, 인접지역과 상호 연계된 협공작전, 군사훈련과 기강 확립, 위장술과 적에 대한 심리 전술에 이르기까지 주도면밀한 전략 전술을 전개하였음을 밝힌 연구가 주목된다.<sup>61)</sup> 이 밖에 騎兵 중심 군사훈련의 주요 장치인 講武에 대한 연구도 제출되어 있다.<sup>62)</sup> 강무는 이전에도 연구된 일이 있는데, 중앙의 육군 병력에서 기병의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가, 왕권의 위상은 어떠한가 등을 고려하여 더 치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60) 張學根, 「戰場環境과 거북선 船型變化」, 『軍史』 51, 2004. 4,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61) 李敏雄, 「임진왜란 해전을 통해 본 朝·明·日 삼국의 전략전술 비교」, 『軍史』 51, 2004. 4,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姜性文, 「진주대첩에서의 김시민의 전략과 전술」, 『軍史』 51, 2004. 4,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62) 李珥秀, 「朝鮮初期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機能」, 『軍史』 45, 2002. 4.

## 7. 戰爭史 및 戰爭 관련 研究

조선시기의 전쟁사 및 전쟁 관련 연구는 오랜 동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국난극복사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관군의 활동보다는 의병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무기체계와 군사장비 및 군사시설, 군대나 병력의 편제, 전술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쟁사로서 연구되기보다는 개별 전투 중심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강하였다.<sup>63)</sup> 최근의 연구는 이로부터 탈피하는 양상이 대두되는 한편으로, 과거의 경향이 의연히 살아 있는 연구도 다수 발견된다. 임진왜란 때의 명과 일 사이의 협상을 다룬 연구에서도 이 문제점을 짚으면서 전쟁터가 된 조선측의 막대한 피해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sup>64)</sup>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점이 이미 유럽에서는 근대사회가 시작된 지 약 한 세기 가량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실제로 이 시기 이후의 역사 변화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가속도가 붙고 있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면, 당시 조선의 피해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진왜란과 관련된 연구성과들 중 새로운 관점의 제시나 문혀졌던 사실의 발견 등으로 주목되는 것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머지는 목록을 소개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조선의 ‘해외 파병’ 또는 파병을 주제로 삼거나 제목으로 정한 연구가 등장하였다는 것이 종래와는 달라진 점의 하나이다.<sup>65)</sup> 그러나 이 중 일부는 과거

63) 이 점은 그 동안 여러 학자에 의해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盧永九,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の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2에서 다시 개선 방안이 제기되었다.

64) 韓明基, 『임진왜란기 명·일 협상에 관한 연구—명의 강화 집착과 조선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98, 2002. 8, 國史編纂委員會.

이와 함께 임진왜란 시기의 인명피해를 주제로 한 연구도 제출되어 있다(崔豪鈞, 『壬辰·丁酉倭亂期 人命被害에 대한 계량적 연구』, 『國史館論叢』 89, 2000. 3, 국사편찬위원회).

‘征伐’이라는 성리학적 용어를 대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파병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전투와 관련된 연구로서 먼저 徐仁漢의 성과를 들 수 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조선과 명의 騎兵 연합작전이 전과를 제대로 올렸는지를 주요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는데,<sup>66)</sup> 결론은 왜구와의 전투경험이 많은 중국 남쪽 지방 출신의 소위 南兵이 소수임에도 더 뚜렷한 전과를 올린 반면 북쪽 지역 출신이자 기병인 北兵은 큰 전과를 올린 사례가 드물었음을 알려준다. 李敏雄은 정유재란 때 이순신을 대신하여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수군을 지휘한 元均이 일본군에게 대패한 원인을 함선과 전술에서부터 구한 연구를 내놓았다.<sup>67)</sup> 이에 의하면 원군의 지휘능력의 문제와 관계없이 국왕을 비롯한 정치권에는 그에 대한 높은 평가가 나돌았고, 그가 군사의 신망을 잃은 것이나 주변환경의 어려움 등도 있지만 일본군이 그 동안 安宅船이라 부르는 대형함선을 건조하여 여러 척이 조선 함선을 포위 공격하는 전술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조선 수군이 궤멸된 것으로 설명된다. 명량해전에 대해서는 이민웅의 연구<sup>68)</sup>와 아울러 朴惠一, 崔東熙, 宋永德, 金明燮 등 핵물리학과 원자핵공학을 전공하는 자연과학자 4명의 공동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는데,<sup>69)</sup> 후자는 전투가 전개된 당시의 조선을 시간대별로 파악하여 각 시간마다의 전황을 복원하

65) 서인한, 『한민족 역대 파병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2 ; 徐仁漢, 『朝鮮時代 海外派兵의 軍事的 特徵』, 『戰史』 5, 2003.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5, 한명기, 『한국역대 해외파병 사례 연구—1619년 ‘심하 전투’ 참전을 중심으로』, 『軍事史研究論叢』 1, 2001. 4,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66) 徐仁漢, 『朝·明聯合軍 騎兵作戰의 展開 樣相』, 『軍史』 51, 2004. 4,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67) 李敏雄, 『丁酉再亂期 七川梁海戰의 배경과 원군 함대의 패전』, 『韓國文化』 29, 2002. 6,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68) 이민웅, 『명량해전의 경과와 주요 쟁점 고찰』, 『軍史』 47, 2002. 12,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69) 朴惠一 외, 『이순신의 명량해전』, 『정신문화연구』 88, 2002. 9.

고자 하였다. 비록 中軍을 조선후기의 중군과 같은 존재인 것으로 오해한 문제 등이 눈에 띄지만, 자연과학이 역사학에 기여한 한 장면으로 인정할 만하다. 전투보다는 의병의 세력 결집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崔孝軾의 연구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70)</sup> 그는 전쟁이 일어난 뒤의 경주 지식인 계층의 동향으로부터 시작하여 회맹과 그 이후 경주성 등을 탈환하는 과정을 살피고 있는데, 기록을 액면 그대로 믿어 애국충정지심의 발로로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임진왜란의 원인, 성격 등에 대한 연구 중 박재광은 과연 임진왜란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 야망에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일본군이 한반도 점령작전을 전개한 양상을 추적하였는데,<sup>71)</sup> 일본군이 부대별로 8도를 나누어 점령하려는 계획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공작을 펼치고 정책도 수립하였다고 보고 이 전쟁이 치밀한 계획 아래 시작되었다는 설에 손을 들었다. 노영구는 의병 중심으로 이해되는 등의 문제를 임진왜란 이후 공신책봉 과정과 사족 양반 중심으로 전개된 조선시기의 역사에서 추적하여 그 기억이 현재까지도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밝혔다.<sup>72)</sup> 그는 또한 임진왜란 초기 전투의 양상에 대해 처음부터 의병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관군은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기존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일본 和歌山縣立博物館 소장 「壬辰倭亂圖屏風」의 장면을 통해 분석하여 관군이 상당한 전투력을 보였음을 주장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관군의 기여도는 초기 전투보다는 역시 1593년 이후의 활약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sup>73)</sup> 한편 리우바우첸의 연구는 중국인

70) 崔孝軾, 「壬辰倭亂時 蚊川會盟 攷」 『典農史論』 7, -松籐李存熙教授停年紀念號-, 2001. 3.

71) 박재광, 「임진왜란기 일본군의 점령정책과 영향」, 『軍史』 43, 2001. 8,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72) 노영구, 「공신 선정과 전쟁 평가를 통한 임진왜란 기억의 형성」, 『역사와 현실』 51, 2004. 3, 한국역사연구회.

73) 盧永九, 「壬辰倭亂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和歌山縣立博物館 소장 「壬辰倭亂圖屏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韓國文化』 31, 2003. 6, 서울대 한국

으로서 명이 과병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끈 문제 등을 그런대로 객관적으로 보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sup>74)</sup> 정치학 연구자인 이완범과 한국사 전공자인 한명기가 비슷한 시기에 임진왜란 중의 명과 일의 협상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였다.<sup>75)</sup> 전자가 조선의 입장이 중심이라면 후자가 강대국 중심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명확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김강식은 정유재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명당이 활약한 4차에 걸친 서생포회담을 연구했는데, 실상은 정보 확보가 주목적이었다고 한다.<sup>76)</sup>

이 밖에 인물사 연구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한 이장희의 연구,<sup>77)</sup> 충남사학회에서 梨時 전투에 초점을 맞춘 특별기획과 기획에 들지는 않았지만 역시 같은 전투를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다.<sup>78)</sup> 임진왜란 때 납치된 조선인 문제와 광해군 때 후금에 잡혀간 포로 문제를 다룬 연구도 관심을 끈다.<sup>79)</sup> 전자는 被擄人 사이의 정보교류와 피로인과 朝鮮使臣 사이의 정보교류의 실상을 검토하고 對馬島主의 공작에 피로인이 희생된 사례를 제

문화연구소.

- 74) 리우바우첸, 「임진왜란시 명 과병의 실상에 대한 일고찰—그 동기와 시기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14, 2003. 3, 高麗史學會.
- 75) 한명기, 이 글 주 64)의 논문; 이완범, 「임진왜란과 국제정치학—일본의 조선분할요구와 명의 對조선 종주권 확보의 대립, 1592~1596—」, 『정신문화연구』 89, 2002.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76)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의 西生浦會談과 그 의미」, 『蔚山史學』 11(金謙周教授停年紀念論叢), 2004. 5, 蔚山史學會.
- 77) 이장희, 「임란중 인물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韓國人物史研究』 1, 2002. 9, 한국인물사연구소.
- 78) 崔永禧, 「壬辰倭亂史에서의 梨時大捷의 意義」, 『忠南史學』 12, 2000. 8, 忠南史學會; 金祥起, 「壬辰倭亂期 權慄의 梨時大捷」, 『忠南史學』 12, 2000. 8, 忠南史學會; 趙浚來, 「壬亂初期 두 차례의 금산전투와 그 戰略的 의미」, 같은 책; 崔槿默, 「壬辰倭亂期 錦山戰鬪의 殉節과 梨時大捷에 대한 崇揚」, 같은 책(이상 특별기획 논문); 郭鎬濟, 「壬辰倭亂期 梨時大捷의 意義와 再檢討」, 같은 책.
- 79) 민덕기, 「壬辰倭亂에 납치된 조선인과 정보의 교류」, 『史學研究』 74, 2004. 6, 韓國史學會; 高윤수, 「광해군대 조선의 요동정책과 조선군 포고」, 『東方學志』 123, 2004. 1, 연세대 國學研究院 .

시하고 있고, 후자는 1620년대의 조선 정치상황을 검토하고 강경해진 후금을 회유하는 임무가 조선인 포로에게 부여되어 수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전근대사회에서 일어난 국가권력의 작용 속에 군인이나 민간인이 희생 되는 양상이 드러나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끝으로 소개나 검토 의견을 달지 못한 글들의 목록을 주를 통해 소개 한다.<sup>80)</sup>

- 80) 李相弼, 「壬亂信義人脈 小考-茅谿日錄을 중심으로-」 『陝川壬亂史』 2, 2001. 3, 陝川壬亂信義記念事業會.
- 鄭瑛哲, 「壬亂義兵史-陝川義兵軍의 活動을 中心으로-」 『陝川壬亂史』 2, 2001. 3, 陝川壬亂信義記念事業會; 「壬亂倭亂 研究 小考」, 앞의 책.
- 하태규, 「丁酉再亂期 全羅道 지방의 義兵活動에 대하여-全羅道 北部 地方의 義兵活動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10, 한일관계사학회.
- 한명기, 「임진왜란과 명나라 군대」, 『역사비평』 54, 2001. 2.
- 柳承宙, 「丙酉胡亂의 戰況과 金化戰爭 一考」, 『史叢』 55, 2002. 9, 高麗大史學會.
- 유재춘, 「명자호란시 김화전투와 전골총고」, 『史學研究』 63, 2001. 9; 「임진왜란시 일본군의 조선 성과 이용에 대하여」, 『朝鮮時代史學報』 24, 2003. 3.
- 李敏雄, 「朝·明 聯合艦隊의 形成과 露梁海戰 경과」, 『歷史學報』 178, 2003. 6.
- 최두환, 「임진왜란과 응포 상륙 작전의 의의」, 『곰메문화』 4, 2002. 11, 진해웅천향토문화연구회.
- 安國承, 「壬亂 義兵將 鄭文學에 대한 재조명」, 『京畿郷土史學』 7, 2001.
- 조원래, 「壬亂海戰의 승첩과 興陽水軍의 활동」, 『壬辰倭亂과 高興-壬亂海戰의 水軍基地 官四浦의 역사-』 2002. 10, 高興郡·順天大 南道文化研究所; 「壬亂初期 海戰의 승첩과 興陽水軍의 活動」, 『全南史學』 19, 2002. 12, 全南史學會; 「文緯世의 삶과 임진왜란 의병활동」, 『朝鮮時代의 政治와 제도』, 2003. 8.
- 최인선, 「興陽邑城과 4개 鎭城」, 『壬辰倭亂과 高興-壬亂海戰의 水軍基地 官四浦의 역사-』, 2002. 10, 高興郡·順天大 南道文化研究所; 「興陽邑城과 高興의 4개 鎭城에 대한 고찰」, 『南道文化研究』 8, 2002. 12, 順天大 南道文化研究所.
- 崔孝軾, 「壬亂 義兵 都大將 金沔 研究」, 『梨花史學研究』 30, 2003. 12, 梨花史學研究會; 「慶州府의 壬亂義兵 記錄에 관한 研究」, 『新羅文化』 19,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2001. 8.
- 김주식, 「朝鮮後期 海防史的 視野에서 본 馬山の 戰略的 位相」, 『加羅文化』 16, 2002. 12, 慶南大 加羅文化研究所.
- 조재곤, 「임진왜란시기 조선과 명의 문화교류」, 『아시아文化研究』 6, 2002. 2,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중국 중앙민족대 한국문화연구소.

## 8. 맺 음 말

먼저 이제까지 살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최근의 조선 시기 군사사 연구는 조선시대 전반의 연구가 활성화되는 양상에 힘입는 한편, 군사사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이해가 깊어진 결과로 전례 없는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조선전기는 자료상의 한계와 관련하여 군제사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탄력을 잃고 있다.

둘째로, 군사사의 부문별로 볼 때, 아직도 군제사와 전쟁 및 전쟁 관련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군역 연구의 필요성이 더 시급한 조선전기의 경우는 활기를 잃고 있는 반면, 기초자료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조선후기의 연구는 차분히 진전되고 있다. 군사재정에 대한 연구 역시 조선후기에 편중되어 있다. 무반 가문과 가계 연구 역시 기초자료에 바탕을 두고 연구가 진전되고 있으며, 장수 등 인물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병서와 무기 및 무기체계, 전법을 함께 살피면서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진전되어 군사사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반면 군사시설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셋째로, 자료와 연구방법론, 관점의 다양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전쟁사를 중심으로 기존의 관행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군사제도의 경우도 기초자료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사회사와의 관련 폭도 넓어지고 있으며, 각 부문 공히 객관성의 추구에서 전보다 성숙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료의 발굴 및 정리,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관점의 다양화는 꾸준히 진전되어야 할 과제이다.

역사학의 여러 측면에서의 특성 가운데서 ‘종합학문’이라는 사실이 지니는 의미는 각별하다. 역사학이 기초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는 데에는 사료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과 함께 이 종합학문이라는 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합학문으로서 역사학의 특성은 근래에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망각되거나 무시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연구가 드물어지고,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주제를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역사학의 여러 분야사 가운데서도 군사사는 운명적으로 종합학문으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게 되어 있다. 주제의 지나친 미세화 경향이 나타나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이것이 군사사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종합사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실제 어느 정도나 구현되고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사회구조가 고도화되고 구성이 복잡해진 근현대사회에서는 경우가 좀 다르지만, 전근대시기의 역사 속에서 군사제도는 정치제도와 밀착되어 결합되거나 그에 버금가는 위상과 의미를 지녀왔다. 그리고 군사제도가 원만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군사지휘체계와 군사행정체계가 구비되어야 하고, 병력을 선발하여 훈련하고 동원하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하며, 무기 및 각종 군수물자를 제작·공급하는 장치와 성곽 등의 국방시설 및 교통 군사시설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군사사의 연구는 당시의 사회운영 원리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련을 맺으며, 나아가 정치사 및 사회경제사의 이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군사사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점은 앞으로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4. 10. 15, 심사완료일 : 2004. 11. 10)

주제어 : 군사사, 군역, 무반, 무기, 군사시설

<ABSTRACT>

The Trends of Studies on the Military History  
in the *Joseon* Dynasty, 2001~2004

O, Jong-rok

The vitality of the studies on the military histo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induced by that of historiography in the *Joseon* Dynasty and its energy was based on consolidated fundamental of the military history in the *Joseon* Dynasty and strengthened understanding of it. But that phase was mainly of the studies in the late *Joseon* Period. Those in the early *Joseon* Period was so concentrated on the central military system by the limits of the historical materials, that the vitality of studies were under the phase of decreasing.

Following is the brief account of the result of viewing on the studies on the history of military in the *Joseon* Dynasty in late years. Studies on the military system and on the history of war were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like ever. Studies on the military service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necessity of which is imperative were under the phase of decreasing. On the other hand, those in the late *Joseon* Period were full of energy, and it owed to rousing of studies on basic materials of that period. Also the studies on the financial affairs were focused on the late *Joseon* Period. The studies on the family and lineage of military nobility in the late *Joseon* Period were progressed with the studies on the commanders in those days. Especially we should keep an eye on the studies on the military tactical manuals and military strategies written and devised in the late *Joseon*

Period. But the studies on the military installations like long-wall and castles were almost not accomplished.

So much portion of the studies on war were advance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 those articles on war were focused on the war *Imjinwaeran* (1592~1598) and patriotic activities of commanders of the troops in the cause of justice or navy. In spite of these limits, the studies on the history of military in the *Joseon* Dynasty have been marching with progress of picking out of materials, developing of researching methods, being diverse of viewpoints. For example, a few studies on the military system and defence system have based on basic materials of those period, and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with social history. The objectivity of study have been rising in recent days. Nevertheless, picking out of materials, developing of researching methods, being diverse of viewpoints are everlasting necessity to progress the studies on the history of military.

Key Words : Military History, Military Service, the Family of Military Nobility, Weapon, War History

K C I